



이야기가 있는 홋카이도 유산.

1. 「稚内(왓카나이)항구 북방파제둑」 - 稚内市(왓카나이시)

왓카나이(稚内)와 가라후토 오도마리(樺太大泊) 사이의 舊 지하쿠(稚泊) 항로 정비의 일환으로서 겨울의 북서 월파(越波)방지를 위해 건설된 반 아치식 둑. 해상으로 부터의 높이는14m이고, 6m의 간격으로 원기둥 72개를 세워놓은 길이 427m의 세계에서 보기드문 독특한 경관과 구조를 지닌, 항만 토목사에 남을 걸작이자 舊 가라후토 항로시대의 기억을 남겨놓은 역사 유산. 설계자는 당시26세의 토목기사 쓰치야 미노루(土谷),



2. 「宗谷(소야) 구릉의 빙하 지형」 - 稚内市(왓카나이시)

소야 구릉에서 볼 수 있는 완만한 지형은, 약2만년 전의 최종 빙하기에 형성된 빙하 본래의 특징적인 것으로, 빙하 주변부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인해 생긴 것. 상공에서 바라보면, 계곡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독특한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이 구릉에는 광대한 소목장이 펼쳐져 있고, 혹독하지만 풍부한 이 자연속에서 자란 약 300마리의 건강한 흑우가 방목되고 있다.



3. 「天 川(테시오) 강」 市町村(시읍면) 유역

테시오 강은 길이 256km로 홋카이도에서 두번째로 긴 강. 松浦武四郎(마쓰우라 다케시로)는 테시오강 내륙조사 도중에 「北海道」(홋카이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강 이름의 유래가 된 댈시(아이누어로 「대들보」라는 의미)가 많이 있고, 강어귀까지 160km를 한번에 내려갈 수 있는 일본에서도 손 꼽히는 카누의 적지로서도 유명하며 카누 애호가들은 20여개의 카누포트에서 출발하여 큰 강을 내려간다.



4. 「留萌(루모이) 청어가도(街道) - 佐賀(사가) 파수막, 舊花田(하나다) 家 파수막, 岡田(오카다)家와 생활문화」 - 留萌 (루모이) 地域

청어잡이는 松前藩(마쓰마에한) 시대부터 북상하는 청어를 쫓아 대량으로 잡히는 장소를 바꾸어 가며 이 지역에 많은 전설을 남겼다. 풍어, 박어, 흥어라는 말처럼 번역스럽게 밀어 닦치는 청어들에게 휘둘러 일단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밀려들어오는 무리를 보면 파수막에서는 청어알과 청어를 말리기 위한 작업에 시간을 쏟았다. 어느 해부터인가 청어는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지만 청어잡이가 성황이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의 청어가도의 파수막과 생활 문화가 잘 전해주고 있다.



5. 「毛(마시케)의 역사적 건물들 - 역전의 역사적 건물들과 마시케 초등학교」 - 毛町 (마시케 마을)

留萌線(루모이선)의 종착역인 마시케 역 주변에는 明治(메이지)초기부터 영업을 해 온 「舊商家丸一本間(舊 상가 마루치 혼마)」를 비롯하여 일본해의 강한 바람과 눈에도 잘 견디어온 석조, 목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높은 평지에 위치한 마시케 초등학교는 1936년에 건축된 전쟁 전의 도시형 목조 건물로서는 홋카이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학교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도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으며 체육관에서는 콘서트가 열리는 등 졸업생을 비롯한 마을 안팎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 「旭(아사히) 다리」 - 旭市(아사히)

「많은 시간과 함께 추억을 남기며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아 온 다리가 있습니다」 - 「旭橋(아사히 다리)」라는 책 제목의 첫머리이다. 아사히 다리는 홋카이도 북쪽 중심도시인 아사히카와시에 흐르는 石狩(이시카리) 강에 놓인 다리로, 1892년에 현재의 위치에 흙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놓여졌고 1932년에는 강철제의 아치 곡선형인 현재의 다리가 당시의 최신기술로 준공되었다. 강의 도시이기도 한 아사히카와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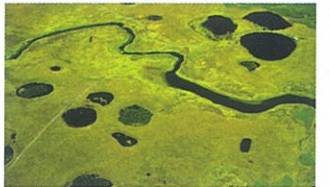
7. 「흙 박물관」 - 上富良野町(가미후라노 마을)

스가노 농기계제작회사가 개설한 흙 박물관은 홋카이도 개척이 혹독한 기상조건 속에서 발전해 온 경위와, 사람과 흙의 관계의 소중함을 잘 전해주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보기드문 높이4m의 거대한 흙표본 전시는 1926년에 일어난 十勝山(도카치산)의 분화에 의한 진흙 재해의 무서움과 밑바닥부터 보란듯이 다시 일어난 홋카이도 사람들의 강인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8. 「雨龍(우류) 늪 습원」 - 雨龍町(우류 마을)

増毛(마시케) 산지의 표고 850mm에 있는, 홋카이도의 산지 습원 중에서 가장 큰 고층 습원. 크고 작은 원형의 연못이 백수십 개 있어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습원식물도 풍부하여 1964년에는 홋카이도 지정 천연기념물로, 1990년에는 暑寒別(쇼칸베쓰), 天売(테우리), 焼尻(야기시리)가 국가지정 공원 특별 보호지대로 지정되었다. 「우류 늪 습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활동은 습원을 미래에 물려주려는 소중함과 어려움을 가르쳐 주고 있다.



9. 「홋카이 간선용수로」 - 空知地域(소라치 지역)

赤平市(아카비라시)에서 南幌町(난포로 마을)까지 길이 약80km에 달하는 홋카이 간선용수는 일본에서 가장 긴 농업전용 용수로이다. 空知(소라치) 평야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홋카이도의 곡창지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라치 강에서 물을 얻기 위해 1924년에 착공된 홋카이도 頭首工(도수공)을 기점으로, 美瑛市(비바이시)에는 조정 연못이, 岩見沢市(이와미자와시)등의 시가지에는 친수(親水) 공원 등이 정비되었다.



10. 「空知(소라치) 탄광시설과 생활문화」 - 空知地域(소라치 지역)

소라치는 국내 최대의 탄광 생산지로서 최고 전성기에는 100개의 탄광, 83만 명의 인구가 일본의 근대화를 뒷받침했지만 에너지 전환에 의한 합리화, 폐산이 이어지며 소라치 탄광은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 지역에 남아있는 탄광 관련시설들은 생산 과정에서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있어 마치 지붕없는 박물관을 보는 것 같다. 또한 三笠市(미카사시)가 발상지인 홋카이도 盆踊り(민속 춤) 등 탄광은 여전히 많은 생활 문화를 소라치에 남기고 있다.

